

##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 통합 논의 서둘러야

호남고속철 경유·활주로 연장 완료되는 2025년 전에 결론내야  
특별법 국회 논의·합평 주민설명회 등 광주 군공항 이전 가시화  
“광주-전남 공항 문제 지역 아닌 국가적·세계적 관점에서 풀어야”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오는 2025년까지 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활주로 연장 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국제공항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던 광주공항 국내선 통합 문제에 대해 광주-전남이 단계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절차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의 숙원이었던 무안 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 공항 경유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의 사업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 항공기 취항이 가능해져 유람·미주 노선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고속철도와 항공을 연계하는 상품으로 경쟁력만 갖춘다면 충청권, 영남권의 여행객까지 유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광주공항과의 통합, 즉 국내선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이다. 민선 7기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1년까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약속했으나 군공항 이전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역여론에 밀려 이행하지 못했다.

당시 전남도는 광주공항 국내선이 이전할 경우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이 300만 명을 넘어선다는 국제공항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89만명에 달했고, 지난해 광주공항 이용객이 200만 명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했다.

광주시의 약속 불이행과 함께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전남 간 불협화음은 민선 7기에 계속 이

어지면서 상생과 이를 통한 지역 발전 토대 마련을 바라는 지역민에게 실망만 안겼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합평에서 처음으로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갖는 등 분위기를 바꿨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보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두를 수 있도록 지역 내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 일각에서는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 수도권 접근성과 제주도 관광의 불편을 들어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025년 호남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의 폭이 넓어지고, 수도권 접근은 여객 수요 증가에 따라 고속철 운행 횟수를 증편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광주시는 대구시와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은 광주공항 국내선 통합 이전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광주-전남은 공항 문제에 있어 지역 내부가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공항 국내선의 통합은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 통합 논의를 시작하고 광주-전남이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군공항 이전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l@kwangju.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을 찾아 '검찰독재 야당 탄압 규탄 연설회'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 찾은 이재명 “함께 싸워 민주주의 지키자”

### 검찰독재 야당 탄압 규탄 연설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텃밭인 호남에서 이틀째 ‘국민속으로, 경정 투어’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2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검찰독재 야당 탄압 규탄 연설회’를 가지면서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관련기사 3면>

전날 전남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이날은 광주를 찾아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어 송정매일 시장 내에서 당원들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검찰독재 야당 탄압 규탄 연설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면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맞서 싸우자고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말려진 권한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써 사용돼야 한다”며 “마치 고스톱을 쳐서 딴 돈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고 맹비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아이 셋 이상 집 자동차 개소세 300만원 면제

### 내년부터...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추가로 포함된다. /연합뉴스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진입 매뉴얼도 없네 ▶6면

전 세계 여행 급증하는데...비행기가 없다 ▶10면

신 팔도명물 - 강진 토하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 명작수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